

90년대 우편사업에 바람

—우체국은 지역사회 중핵이 되어야 한다—

1. 우체국에 기대한다.

최근 6년간 우정심의회우편부회의 일원으로서 우편사업을 안에서 보는 기회를 가졌고, 1989년에는 「21세기를 향한 우편사업의 자세에 관한 조사연구회」의 좌장(座長)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한 경험도 있다. 또한 1971年末, 당시의 공공기업체등,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 임명되고부터 18년간은 국영기업 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으로서 우정을 담당하여, 그 노사관계를 통하여 우정을 밖에서도 보아왔다. 나의 이러한 경험때문에 「90년대 우편사업에 바람」이라는 테마를 준것 같으나,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나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우편사업의 장래에 대해 희망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90년대 나아가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우정성이 지금껏 전개해온 우편사업을 돌아다보고, 장래에 있어야 할 자세를 제시한 적절한 논고가 郵務局長에 의하여 최근에 발표되어 내가 이에 부가할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우편사업을 우정국사업에 올바르게 자리잡도록하여, 총체적으로 우체국은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장

래상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긴급사이다. 따라서 우편사업만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한다는 것은 우정사업의 역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또는 우정사업의 장래에 있어야 할 자세를 생각해보더라도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세째로, 내가 보는바 최근 수년간의 우편사업은 「우편의 역무를 될수있는대로 저렴한 요금으로 널리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우편법 제1조)라는 주어진 제도의 범위안에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국민의 요구에 거의 부응하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 즉 차례 차례로 나오고있는 이용자의 요구에 대응한 또는 그를 앞서가는 각종 새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최근 수년의 개혁을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기업과의 공존, 상호보완, 때로는 경쟁을 어떻게 조합시켜 公私가 각기 갖는 이점을 살릴 것인가. '24시간 사회'라는 시대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어떻게 전개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기위한 근무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휴완전2일제(週休完全二日制)실시를 위하여 어떠한

1. 우체국에 기대한다.

대응이 필요한가. 원래 노동집약적인 사업이기때문에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두말 할나위없다. 그런데 그 전달통로는 어떤가. 등등 이러한 것들은 지금쯤 재검토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한 항목이다. 이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2. 공기업과 사기업의 분업과 협력

본고에서 말하고 싶은 「90년대 “우체국”에 바람」을 논하는 전제로서, 다음 두가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첫째는 「公」과 「私」와의 관계이고, 둘째로는 우정 3사업의 일체성의 문제이다.

먼저 「公」과 「私」와의 관계에 대해서 볼때 근래 10수년간 이 문제에 관한 일본 世論의 움직임을 보면, 실로 어지러운 지경이다. 「私」는 모두가 악이었다고 하는가하면, 일조(一朝)에 「私」는 모두 선으로 化하고 「公」은 모두가 악으로 되어버린다. 과연 그러한 것일까 「私」에는 「私」의 장점도 있는가 하면 단점도 있고, 「公」에도 단점이 있지만, 장점도 있는 것이 아닐까. 확실히 사기업간의 자유경쟁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의 경제적인 풍요를 실현해 준다. 그러나 자유경쟁은 악육강식의 세계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세상에는 자유경쟁에 적합한것이 있는가 하면, 부적합한것도 있다. 예컨대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財物이나 서비스의 제공은 수익성

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항구적인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공기업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이다. 수익성을 전적으로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나, 필요하다면 수익성을 어느정도 희생할 수 있는 공기업의 존재의 필요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널리,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우편사업이 「私」에 의하지 않고, 「公」에 의하여 운영되는 이유도 또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정사업의 3사업일체성을 순수하게 이론적으로 생각한다면, 3자는 각기 독립적인 것이어서 결코 불가분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3사업의 일체성에는 긴 역사가 있다. 뿐만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에 약 2만 4천에 달하는 3사업을 일체적으로 경영하는 우체국이 배치되어 있기때문에, 수익성을 금과옥조(金科玉條)로 하는 사기업이 거들떠 보지도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체국이야말로 의지할 곳인 것이다. 거기에 가기만하면 우편은 물론이고, 「보험회사」도 「은행」도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마음 든든한지 모른다. 우편만의 우체국이어서는 그 존재가치가 반감될 뿐만아니라 효율성, 수익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인구가 겨우 30여명인 낙도에 우체국은 불필요하다. 행정개혁위원회의 압력에 시달리면서도 간이우체국으로서 우체국을 유지하고있는 우정성의 의지야말로 복지국가의 명분에 맞는 장거(壯舉)라고 감격했던 것이다. 우체국은 최후의 한사람이 존재하지 않을때

까지 그 사명을 완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 존재이며, 그 한사람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사회적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존재인 것이다.

3. 미래사회에 걸맞는 우정사업의 자세

지난번, 우체국은 커뮤니티센터로 되어야한다는 발상에 대해 이야기한바 있다. 그후 나의 견문은 이 느낌을 더욱더 강하게 하고 있다.

인류사상 전례가 없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도래를 가까운 장래에 경험하게 될 일본의 현상-유효한 대응책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정치, 행정 그리고 사회의 현상-을 생각할 때에, 그 대응책으로서 생각될 수 있는 여러시책의 실시자로서, 우정사업에 극히 큰 역할을 기대하게 될 것이다. 호별마다 우편물을 배

달하기 위해 연일 빠짐없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에라도 찾아가는 많은 따뜻한 마음씨의 직원이 있는 우정사업의 존재, 지역주민의 깊은 신뢰를 받고 있는 3사업일체의 우체국의 존재는 앞으로의 사회를 생각한다면 불가결의 존재라고 생각된다.

당면한 우편사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기원하면서도, 그리 멀지않은 장래에 우리들이 맞이하게 될 사회속에서 우정사업이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명을 지금부터 자각하여, 이에 대처하는 자세를 충분히 검토해 둘 것을 요망하는 바이다.

(S. 이찌하라, 일본대학 법학부 교수)
(POST 21, 1990.1)

3. 미래사회에 걸맞는 우정사업의 자세